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림자원 효율적 활용 방안 논의

- 국립산림과학원, 경북 산림자원 활용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 세미나 개최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11일(화) 경북도청, LX인터내셔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산림자원 활용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경북지역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LX인터내셔널은 이번 세미나에서 경북지역에 추진중인 산림자원수집센터 구축 사업에 대해 소개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이와 관련하여 ▲산림자원수집센터 운영을 위한 지역산림순환경영 모델 및 국외 선진사례 ▲경북지역 산림자원 분포·공급 현황과 산림바이오매스의 탄소중립 역할 ▲산림자원 수집·공급을 위한 기계화 임업을 소개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임산소재연구과 박미진 과장은 “이번 세미나는 민간 기업의 투자와 공공 부문의 연구·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산림자원의 체계적인 수집과 공급망 구축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탄소중립 실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국립산림과학원 임산소재연구과	책임자	과 장	박미진 (02-961-2741)
		담당자	연구사	이재정 (02-961-2745)